

나주 또 다른 명물 ‘추황배’

배연구회 4년간 연구 결산... 16t 대만 시범수출

나주시가 수년간 국산 품종인 추황배를 전라적으로 육성해 최근 첫 수출길을 열었다. 추황배는 그동안 과실의 크기가 작고 껍질이 검게 변하는 현상이 잦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하지만 나주배연구회 등이 지난 2009년부터 품질 개선에 나서면서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하면서 최근에는 신고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나주시는 17일 “지난 14일 추황배 16.3t을 선적해 대만으로 시범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된 물량은 컨테이너 1대 물량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3500여 만원에 불과하지만 현지 소비자 반응이 좋아 수출 물량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추황배는 단맛과 신맛의 절묘한 조화로 탁월한 식감을 가졌지만 품종 고유의 특성으로 껍질이 검은 반점이 생기는 ‘과피 흑변현상’때문에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당도가 13~14브릭스(brix·물 100g에 녹아있는 당의 g수)로 높고 새콤달콤한 특 특유의 맛이

뛰어날 뿐 아니라 신고배 집중 출하 시기를 지나 10월 중·하순에 수확이 가능하고 저장성이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나주시는 이 같은 점에 주목하고 나주만의 대표적인 배 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나주배연구회와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APC)과 함께 추황배 생산 면적을 확대하고 출하체계를 일원화했다. 추황배 출하 물량은 지난해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56t에 그쳤지만 올해는 이보다 7배 늘어난 370t에 이를 전망이다. 나주시는 늘어난 추황배 생산물량



영랑생가서 전통혼례식

지난 16일 국가중요민속자료 제252호인 강진군 강진을 영랑생가 안마당에서 처음으로 전통혼례식이 열렸다. 늦깎이로 결혼한 신랑신부는 문화재 관련 종사자들로, 특별한 결혼식 장소로 영랑생가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군 제공〉



지난 14일 나주 추황배가 대만으로 첫 수출됐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국산 품종인 추황배의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 면적을 늘려왔다.

을 국내 공급물량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한 국내시장 마케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식감이 뛰어난 추황배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여 호평을 이끌어 내, 현재는 인지도가 신고배 못지 않게 높아져 대등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j@

고품질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

담양 농기센터

담양군이 고품질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해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7일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유용미생물배양실을 완비, 연간 100t의 고품질 유용미생물을 만들어 친환경 농작물 재배농가와 축산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또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토착 유용미생물 발굴에 나서 지금까지 지역에 산재해 있는 대숲토양에서 새로운 토착 미생물을 찾아내기도 했다. 이 가운데 13종이 바실러스균으로, 1~2개 군주는 항균활성이 우수해 유용미생물로서 효과 기대

되고 있다. 군은 앞으로 정밀한 항균력 및 효소활성 분석과 최적 배양조건 등을 확립해 신규 군주도 등록하고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적극 이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담양군이 친환경농업의 메카인 만큼 효능이 우수한 토착미생물을 자체적으로 발굴, 생산해 더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선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생물은 작물생장촉진, 병해충 방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제거 등을 위해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돼 농업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igg@

전북

말 많고 탈 많은 노암 농공단지

남원시, 유치기업 1년 5개월만에 문 닫아

임주업체는 “도로확장 약속지켜라” 불만

이완주 남원시장 취임과 함께 청신호가 켜졌던 ‘지역경제 살리기’가 공염불이 될 처지에 놓였다. 남원시가 공을 들여 유치한 기업이 2년도 안 돼 문을 닫는가 하면 유치협약 과정에서 임주기업에게 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남원시 등에 따르면 최근 최종부도 처리된 (주)엠피온스를 유치하기 위해 지원금 등으로 10억여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 업체가 1년5개월 만에 문을 닫으면서 시민 혈세만 낭비하게 됐다. 또 (주)엠피온스를 유치한 공로로 포상금만 4500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남원시 투자유치 촉진지구에 최초 입주한 업체가 부도 처리되면서 시가 추진중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

업을 관련 농공단지 임주업체들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남원시 노암동 노암 농공단지 임주업체들은 최근 긴급 모임을 갖고 “농공단지 임주기업 지원정책 개선방안으로 애초 약속한 서남원 IC에서 노암 농공단지 진입로 4차선 확장 약속을 지켜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임시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기업유치를 하면서 시가 하지 못할 약속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2001년 노암 제1농공단지를 시작으로 2009년 제2농공단지를 잇따라 완공했으며, 최근에는 2014년까지 노암 제3농공단지를, 장기적으로는 사매면 일대에 30만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가 재정 형편

을 외면하고 외형적인 성장에만 나서는 것은 물론 부도처리된 (주)엠피온스가 타 지자체에서 혐오시설로 유치를 꺼렸던 유기과산물 등 화학물 취급 업체였다는 점에서, 시가 유치기업의 효과를 과대 포장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 이 업체가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남원시 국장 퇴직자가 취업했던 사실도 밝혀지면서 논란은 거세다. 이에 따라 농공단지 임주 업체와 지역경제살리기 시민모임 등은 무분별한 농공·산업단지 조성보다는 기업유치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민 박도(55)씨는 “말로만 기업유치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성과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에 짐이 되고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재의 기업유치 시스템에서 불거진 도덕불감증과 허술한 검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정읍시외버스터미널 준공

정읍시는 지역숙원사업이었던 정읍시외버스 공용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15일 준공식을 가졌다. 지난 4월 첫 삽을 뜨지 7개월여 만이다. 정읍시외버스공용터미널은 7025㎡의 부지에 총면적 1360㎡ 규모로, 현대화사업에는 시비 16억원과 터미널 운영자 부담금 4억원 등 모두 20억원이 투입됐다.

〈정읍시 제공〉

기자 노트

가장 좋은 해법은 ‘대화’

최근 장흥지역에 싸늘한 전운이 감돌았다. 농민회가 쌀값 인상을 요구하며 2013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연기를 요구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난 15일 전국 농민에 반대회를 장흥에서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군청사 앞에는 야적된 벼와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가 진을 치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일부 업무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분위기도 이어졌다. 농민회는 지난 5일 장흥의 첫 수매 현장에서 군·경찰과 농민회가 물리적으로 충돌하자 전

서 개최될 경우 뜻하지 않는 불사를 우려한 군·경찰은 물론 영화와 이장단, 지역단체가 발벗고 나서 농민회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또 상당수 지역농민들은 농민회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정부의 추곡수매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김용기 중부취재본부장

지역 내에서는 물리적인 투쟁만이 대안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고, 군·경찰은 농민회에 이러한 분위기를 전달하는 한편 절충안을 만들어 농민회를 설득했다. 결국 군이 공공비축수매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농민회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국농민에 반대회는 개최예정인 15일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반듯게 전격 취소됐다. 가뜩이나 정부 수매 과정에서 감정이 상한 농민들도 이 같은 대화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에 상당수 만족했다는 후문이다. 자칫 대규모 물리적인 충돌까지 우려됐지만 군과 경찰, 그리고 지역민들이 ‘대화’를 통해 지역의 난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지난주에 일어난 일련의 과정은 분명 되새김해볼 만하다. /장흥= kykim@kwangju.co.kr

강진, ‘귀농귀촌 심포지엄’

강진군이 지난 14일 강진다산수련원에서 ‘2013 전국 귀농귀촌 심포지엄(Return To Farming Symposium

In Korea 2013)’을 개최했다. 국내외 전문가, 귀농귀촌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심포지엄은 ‘현실적 귀농귀촌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단 신

고창군 안전 보행환경 개선지구 선정 10억 확보

고창군은 17일 “2014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지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시·도·안전행정부 등 3단계(서면·현장·발표) 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기초자치단체 56곳이 참여했다. 고창

군을 비롯해 최종 선정된 곳은 11곳이다. 군은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 연말까지 교통정온화기법(회전교차로, 골목도로, 무장에도로 등)을 도입한 보행친화형 도로 건설을 완료할 방침이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남원, 춘향사랑 나눔 봉사단 발대식

춘향사랑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기 위한 ‘춘향사랑 나눔봉사단 발대식’이 지난 16일 남원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지난해 미스춘향진 최세이양을 비롯해 10명이 참석했으며, 봉사단장에는 영화 서편제로 유명한 62회(1992년) 미스춘향 진의

오정혜씨가 맡기로 했다. 봉사단의 첫 봉사활동은 17일 남원시 산곡동 소재 전라북도남원노인요양병원에서 어르신 말벗, 목욕, 식사도우미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정읍, 동절기 동파취약시설 점검

정읍시는 수자원공사 정읍권관리단과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동절기 동파취약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과 보수를 실시한다. 시는 또 파손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내달 10일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상수도 동파방지 대책 비상운영팀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 상하수도 사업소 4개

조(20명), 수자원공사 정읍권관리단 5개조(25명)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해빙장비 9대, 급수차 1대, 비상급수 물량 7000개 등을 확보했다. 시는 비상대책반 운영은 기상예보에 따라 주의단계, 경계단계, 비상단계 등 3단계로 설정, 운영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목공예대전 대상 김용호씨 수상

제16회 남원목공예대전 시상식이 지난 15일 오후 2시 남원시청 강당에서 열렸다. 남원시가 남원목기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남원목공예대전은 올해부터 대상이 정부표창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으로 승격됐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시민의 발 멈추나

전북 버스노조 파업 가결

오늘 사측과 다시 협상

전북 지역 버스 노조가 14일부터 이틀간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파업 찬성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노총 전북지역 자동차노조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부는 17일 “지난 15일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다수표를 얻어 쟁의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이날 전체 조합원 1962명 중 1410명이 투표에 참여해 61.5%(1206표)의 찬성률로 파업 쟁의권을 가결시켰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민노총 역시 교섭권이 있는 전일여객과 제일여객에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각각 88.3%, 91.4%로 파업 찬성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 23곳 버스 회사 중 이날 파업 투표를 참여하지 않은 전북고속, 전주고속, 시민여객 등을 제외한 20곳이 파업 쟁의권을 얻었다. 하지만 노조는 파업 돌입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재성 한노총 전북 자동차노조 위원장은 “투표를 통해 조합원들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투표 결과를 가지고 18일 회사와 다시 한 번 협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